

# '자립도시 군산' 만들기 전력투구

**강** 임준 군산시장은 최근 민선7기 취임 3주년 언론브리핑을 통해 그간의 시정운영 성과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의 시정방향을 발표하고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건설'을 반드시 임무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동안 시는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건설'을 시정목표로 삼아 시민이 주도하고 시민이 만드는 시민 참여형 시정구현을 통한 자립도시 군산 만들기에 전력을 다해 왔다.

특히, 대기업들의 잇단 이탈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시민과 함께 해법을 찾고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산업 분야의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으며, 민선7기 3주년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강 시장은 코로나 위기라는 악재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위한 선제적 방역활동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역수칙 준수 사회적거리두기 생활방역, 백신접종 등 코로나 극복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 강임준 시장의 포부

## 다양한 골목상권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민선7기 핵심성공과로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의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쳤으며, 아울러 재생에너지와 친환경 미래를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개편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핵심성공과로 지목했다.

취임 초부터 위기에 빠진 골목상권을 지켜내기 위해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동네문화카페, 전국 최초의 배달업 배달의 명수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전국적인 성공모델로 자리 잡았고 지금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 내 소비자들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하고 골목상권에 유동인구를 늘리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영세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돕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위기의 골목상권을 지켜내고 있다.

또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으로 소상공인 물류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상권리태상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공설시장을 비롯한 구도심 상권 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해 문을 연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와 내년에 완공예정인 '전북사회적경제 혁신터'는 '내년 사회적경제 영역의 핵심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내다봤다.

## 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미래 중심의 산업 구조 개편과 미래 신산업 육성

강 시장은 대기업과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에 한계가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무엇보다도 산업구조의 대개편과 현 시점의 위기상황 극복을 뛰어넘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군산의 미래를 책임질 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사업'과 '친환경 미래 자동차 산업'을 중점 육성해 왔다.

앞으로 군산의 산업구조 대개편의 한 축인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이후 육·수상 태양광발전사업 차등, 재생에너지 연구·실증 클러스터 조성,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 추진 등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시가 주도하는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인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발전사업'은 지난 4월 착공돼 연내 준공될 예정이다. 발전 수익은 시민발전주식회사를 통해 온전히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게 되며,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이 비전목표인 군산의 대표적 인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새만금산업단지 RE100이 실현되는 국내 최초 스마트 국가사업 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태양광, 풍력 등 새만금에서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원은 새만금 산업단지 5~6공구 112만평 규모의 RE100산단에 집적화 될 계획이며, 이미 SK전소사업은 2조원대 투자 약속과 앞으로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할 새만금 스마트그리드 산업단지의 문을 두드리게 될 것으로 기대하

## 시민 행복 '신 백년대계' 조성해 나갈 것

강임준 시장은 "그동안 산업·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도 전에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겹쳐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군산의 미래 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있으며, 문화·관광, 교육, 복지, 안전 등 각 분야의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챙기겠다"고 밝혔다.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미래성장동력 발굴 중 문화·복지 등 각 분야 소홀함 없이 챙길 것"

이어 "지난 3년간 정말 힘 없이 달려왔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남은 1년을 발판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백년대계의 시간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군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약의 길에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군산사랑상품권 발매



코로나 피해대책 지원금 지급



군산형 일자리 1호차 생산 기념식



군산형 일자리 특례보증 지원 협약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고 있다. 산업구조 대개편의 또 다른 축은 친환경 미래자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 신산업으로의 전환이다. 한국GM이 떠나면서 그 자리를 전기차 생산기지로 탈바꿈하기 위한 시의 노력은 노사민정의 대 타협을 이뤄냈고 이를 통한 군산형일자리 사업은 지난 2월 정부 상생형 일자리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전기차 관련 5개 기업이 참여한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우리시에 2024년까지 총 5,710여 명이 투입될 예정이며, 지난달 24일 첫 생산차 출고를 시작으로 연간 전기차 24만대가 생산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에는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를 확보하기 위한 '강소연구개발특구'에 지정됐으며, 자동차 업계의 불우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대체부품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생태계 구축사업'도 최

근 경기도와 상생협약을 맺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새만금 산단 5공구 약 6만평 부지에 1,050억원이 투자되는 '새만금자동차 수출복합센터'가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 대안지로 최종 선정되었고 3년간 국비 4,945억원을 투입해 노후 된 군산국가산단을 지역산업 혁신 스마트 산단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 선제적 방역활동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최선

골목상권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친환경 미래차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개편 미래 신산업 육성이 핵심성과

꼬꼬마양배추 기술보급 등 다양한 먹거리 산업 육성 집중

시간여행축제, 시민참여형 전환 수제맥주 플랫폼 복합화 등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나서

로 재조성하고, 지난 5월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사업 공모에도 선정됨으로써 수산물 유통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산단 7만평 부지에는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군산이 수산식품 수출 거점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셈이다.

##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

문화·관광분야도 민선7기 들어 원점에서 새롭게 재검토에 나섰으며 지난 2019년에는 '시간여행축제'를 시민참여형 축제로 전환해 답보상태의 축제를 당해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게 하는 등의 쾌거를 이뤄냈다.

또한 새로운 문화관광 자원발굴 및 육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중앙동 일원 (구계보산항 일원에 '콘텐츠 팩토리'와 '수제맥주 플랫폼'을 복합화한 '체보스토리 1889'를 건립했고, 군산의 선교역사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군산시교역사관건립사업'을 기획하고 있다. 월명선전망대를 조성한 시간여행마을, 서해나초, 동백대교 등을 연계한 군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한 작업에도 착수하고 있다.

전해의 관광자원을 자랑하는 고군산군도는 지난 3월 개장한 '신시도 국립자연휴양림'과 현재 추진 중인 '광역 해양레저 체험 복합단지', '고군산군도 케이블카'까지 완공되면 명실상부 서해안의 혁신적인 체류형 해양관광단지로 변화된다.

교육에 있어서는 차별없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저소득층 교육지원사업, 어린이 원어원어 학습영역, 희망스카디 사업 등 보편적 교육 및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구월명초 부지에 조성 중인 4차 산업혁명 체험교육센터는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비전을 세우는 공간을 제공해 청소년들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전망이다.

## 다양한 시민체감형 복지안전 분야 사업 발굴 시행

민선7기 군산은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저소득층을 비롯한 소외계층과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소독과 계층에 상관없이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안전 분야의 시민 체감형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군산형 긴급복지사업', '고령자 복지주택 건립사업', '치매인식센터 건립', '노인회관 신축사업', '영·유아 상해·질병보험 가입', '전 시민 안전보험 가입' 등 다양한 시민체감형 복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전라북도 최초로 전 시민대상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고, 지난 4월에는 '군산형 재난지원금 편성지원'을 시행하며 코로나 재난지원 사각지대도 꼼꼼히 챙겼다.

## 시민참여를 통한 소통행정 추진과 자치도시 구현

시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시민의 행정참여를 통한 소통행정에도 중점을 두어 왔으며, 이를 위해 '시민감사관제'를 도입해 시민 감사가 참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참여민주주의플랫폼 시민광장', '시장피해 특&B', '읍면동장 공감대화', '정책자문단 운영',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및 시민참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요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발굴하고 있다.

/군산=고병만기자